

1. 음운 탈락의 유형이 다른 것은?

- ①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 ②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만드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 ③ 한번 둘러서 힘이 되는 말이라도 건네고 싶다.
- ④ 인성이 뛰어난 사람은 드뭅니다.

2. 반의관계의 유형이 다른 것은?

- ① 길다 ↔ 짧다
- ② 살다 ↔ 죽다
- ③ 좋다 ↔ 나쁘다
- ④ 춥다 ↔ 덥다

3.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동일한 것은?

- 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에 닿았다.]
- ② [오늘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날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 ③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나는 네 말대로 다 했다.]
- ④ [그는 낭만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이다.]

4.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왜 아이를 많이 낳았을까? 아이들이 농사 짓는 노동력이 될 수 있고, 내가 늙으면 그들이 나를 부양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 부의 이전 이론의 골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더 크다.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녀를 길러보야 20년 남짓 키우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언제나 더 이득이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녀를 덜 낳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훗날 나를 먹여 살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많이 낳지 않는 것이다.

- ①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피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② 농경사회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했지만, 성장한 자녀 중의 일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다.
- ③ 부유한 가정이 자녀를 덜 낳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적기 때문이다.
- ④ 농경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경제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

5. <보기>에서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사자성어는?

<보기>

인생사 ㉠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같은 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준비하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 만시지탄(晩時之歎)하지 맙시다. ㉢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국가의 부름에 헌신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항시 조그만 일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6.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① 꿀꿀이
- ② 뼈죽이
- ③ 얼룩이
- ④ 흘쭉이

7. <보기>의 (가)~(다)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가)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 존 듀이(John Dewey)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 즉 사고에 대한 사고인 ‘메타(meta) 사고’라고 강조한다. 메타 사고는 주어진 논의 체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논의 밖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좁은 의미에서 수렴적 사고에 해당하지만, 거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 (나) 이러한 비판은 비판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발산적 사고인 창의적 사고를 수렴적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고라고 전제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런 비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개념, 판단, 논증을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가 어떤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렴적 사고라는 점에서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기존의 주어진 논의 체계에만 국한된 비판적 사고는 시대적 요구에 둔감해 보인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논제에 대한 발상이 전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사고를 할 수도 있다. 비판적 사고는 대안 모색과 발상 전환 과정에서 논의 체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발산적 사고 일부를 포함한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8.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꽃이 피었다[피열따].
- ② 늑막염[능마겸]은 가슴막염을 뜻한다.
- ③ 금융[그똥] 기관에 문의했다.
- ④ 방이 넓고[널꼬] 깨끗하다.

9.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 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색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바다, 물결’은 냉혹한 세계를 상징한다.
- ④ 시각을 촉각화하여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는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曼碩戲)\*를 잘하고,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훌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령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땅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 만석희: 개성 지방의 무언 인형극.

\*\* 철괴무: 중국 전설상의 팔선(八仙)의 하나인 이철괴(李鐵拐)의 모습을 흉내 내어 추는 춤.

- ① 외모, 말솜씨, 재주를 통해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 ② 재치 있게 분쟁을 해결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 ④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 없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1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그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다.
- ② 보잘 것 없지만 제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③ 나는 지금까지 수 차례의 고비를 넘겼다.
- ④ 식구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였다.

12. <보기>의 대화에서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A: 오늘 워크샵 가지? 준비는 잘 했어?

ㄴ. B: 어제 밤 샀어요. 안 졸려면 커피라도 마셔야 할 거 같아요.

ㄷ. A: 내가 살게. 커피 마시고 가려면 서둘러.

ㄹ. B: 웬일이세요? 아무튼 감사히 마실게요.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13. <보기>의 대화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 이 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땅을 잘못 빌려준 게 핵심인가요?

B: 아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준 건 문제가 없어요.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A: 왜요? 누가 지상권이라도 설정해 놓았나요?

B: 맞아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이야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지 알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A: 그럼 토지를 빌려준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 ① ‘임대’는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임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 ② B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문제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지 않고 계약을 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 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임차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 ② 전쟁으로 생이별을 했던 형제의 상봉[相逢]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 ③ 그 찻집에는 감미로운 클래식의 선율[線律]이 흐르고 있었다.
- ④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액자[額子]에 넣어 벽에 걸어 두었다.

15. <보기>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기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중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중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중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중략)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땀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 -

- ① 작가가 서술자의 입을 통해 내용에 간여함으로써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작중 인물과 작가의 거리를 좁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③ 장면마다 시점을 바꿈으로써 극적인 아이러니를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화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관찰자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보기>

한숨아 세 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죽 세살장죽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쑥닥 박고 용(龍) 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찢었는디 병풍(屏風)이라 덜걱 저븐 족자(簇子) | 라 더더글몬다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줌 못 드러 흐노라

- ① 狐假虎威
- ② 目不忍見
- ③ 輾轉反側
- ④ 刻舟求劍

17.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땅겼다.
- ② 다 된 혼사를 중간에서 빠개지 마라.
- ③ 그 애는 조금만 추어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 ④ 뜨겁게 작렬하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이 걷고 있다.

18.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나) 내 벼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① (가)와 (나)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다.
- ② (가)의 경우, 자연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니 그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이 나타난다.
- ③ (나)는 현실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수렵과 채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던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무척 건강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을 섭취했으므로 영양 상태도 좋았을 것이며,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녔으므로 배설물 같은 오염원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것은 질병보다는 주로 사냥 중에 발생한 외상이나 열매를 따러 올라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사고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손상에 대한 대처 방법은 주로 직접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의학이 체계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농경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몇 안 되는 종류의 작물과 길들여진 동물에 의존하여 살게 됨에 따라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어려워지자 영양실조가 늘어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배설물과 폐수 같은 오염물질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 일정한 자세로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농사일 때문에 골관절계 질환도 많아진다.

- ①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생활 방식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생활 방식에 따른 건강 상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밀의 알맹이는 배유, 겉질 그리고 배아로 구성돼 있다. 이 알맹이를 통곡물 그대로 빵아 만든 가루가 통밀가루이고, 알맹이에서 겉질과 배아를 제거한 후 오직 배유만 남겨 빵은 가루가 우리가 아는 하얀 밀가루다. 겉질과 배아만 제거했을 뿐인데, 두 가루로 만든 빵의 맛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이는 글루텐 때문이다. 글루텐은 빵의 식감을 결정하는 핵심 성분으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물과 함께 섞이면 만들어진다. 끈적한 성질이 있어, 반죽에 열을 가했을 때 효모(이스트)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은 폭신평신했고 쫄깃쫄깃하다. 글루텐의 재료가 되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배유에 있다. 정제된 흰 밀가루는 배유만 있으니, 당연히 글루텐이 잘 생긴다. 하지만 통밀빵은 함께 갈린 겉질과 배아가 글루텐을 잘라내 빵 반죽이 잘 부풀어 오르지 못하게 한다. 100% 통밀가루로만 만든 빵은 반죽 밀도가 높아서 조직이 치밀하고 식감이 푸석푸석하다.

- ①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다.
- ② 통밀가루에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없다.
- ③ 배유의 성분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 영향을 준다.
- ④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 글루텐의 함량이 높다.